

‘한국 현대사진 대가’ 구본창 개인전 ACC서 만난다

ACC 포커스 ‘구본창: 사물의 초상’

22일부터 ACC 복합전시 3·4관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진예술 선구자 백자·금관 등 사물연작 관심 집중 한강·안성기 등 인물사진도 전시

현대사진의 개척자이자 한국 사진예술의 대가인 구본창 작가의 개인전이 광주로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024 ACC 포커스 ‘구본창: 사물의 초상’ 전시를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ACC 복합전시 3·4관에서 개최한다.

ACC의 대표 기획전시 시리즈인 ‘ACC 포커스’는 그동안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가 직면한 동시대 포괄적 주제를 발굴해 장르의 경계를 실험하는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시각예술 전시였다.

올해부터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개인전 형식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그 첫 시작으로 ACC가 선택한 예술가는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작가다.

구작가는 작품을 통해 평면이 아닌 입체를 강조하고 소리나 빛과 같은 매체의 복합성을 구현한 사진가다. 사진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며 한국 사진예술의 지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에 집중해 그가 선택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거대서사와 미시서사를 동시에 살펴



구본창 작 ‘탈’ 시리즈 대형 카메라 폴라로이드(1998~2003).

ACC 제공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다.

전시는 3개의 주제로 나눠 구성됐다. ‘1부: 역사를 품은 사물에 숨결을 입히다’는 한국전쟁유물, 조선백자, 신라 금관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유물 연작을 영상과 설치작품으로 변주해 선보인다.

‘백자 연작’은 해외로 유출된 백자를 촬영한 작품들로 구성해 10m 높이의 ACC 전시장에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죽자 작품으로 천장에 매달린 백자들의 모습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장면을 연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황금 연작’은 대형 라이트 박스(187x148x59cm)에 전시장 바닥에 놓혀 설치

했다. 발광하는 라이트 박스 안의 신라 금관은 땅에 묻히기 전 찬란하게 빛났을 자태를 재현할 것이다.

이어 ‘2부: 일상 속 사소한 사물을 발견하다’는 구작가가 발견한 일상 속 사물들의 연작을 소개한다. 그의 소장품을 촬영한 ‘컬렉션’, 15세기부터 프랑스 고건축물의 장치인 샤희루(chasse-roue)를 담은 ‘샤희루’, 빈 상자 혹은 비어 있는 공간을 주목한 ‘인테리어’와 ‘오브제’, 그리고 일상 사물인 ‘비누’ 등 다양한 연작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항 작가 한서형이 비누 작품을 재해석해 연출을 더했다.

구작가의 미공개 영상 작품인 ‘코리아 판타지(2017)’도 최초 공개되며 시선을



구본창 작 ‘황금 045(2023)’. ACC 제공



구본창 작 ‘샤희루 54(2003)’. ACC 제공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전통문화의 모티브 중 하나인 단청을 변주한 영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내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3부: 구본창의 시선과 마주하다’에서는 작품들의 피사체가 됐던 구작가의 수집품, 대중매체와의 협업 작품 등 전시 주제와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흥미를 더해 줄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장을 수놓는다. 이 외에도 그동안 촬영했던 소설가 한강, 배우 안성기, 김지훈 등 예술인들의 인물초상 작품을 선별해 소개한다. 또 이번 전시를 위해 구작가, 야마구치 노부히로 그래픽 디자이너, 서영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필 미술사학자, 김수강 사진작가의 인터뷰를 담은 미니 다큐 영상도 새롭게 선보인다. 미니 다큐는 전시를 더 쉽게 이해하

고 감상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예정이다.

한편 ACC는 문화 향유의 장벽을 낮추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시 접근성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의 도록을 점자축각도서로 제작한다. 이 도서는 전시장 내 비치할 예정이다.

또 구작가에게 직접 그의 작품세계와 전시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는 ‘작가와 대화’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린다. 작가와의 대화는 전시 기간 총 3회 개최되며 내년 2월과 3월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전시를 관람하러 온 방문객들이 작가가 전달하는 사물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이야기를 덧입힐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제42회 무등서예연구원 원목회 서예전

21~27일 광주예총 백련갤러리 원목회 회원 작품 70여점 선보

제42회 무등서예연구원 원목회 서예전이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광주예총 백련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원목회는 일속 오명섭 선생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원목회 서예전은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해 올해 42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시 및 명언·명구 등 다양한 서체의 작품을 매년 선보여 왔다.

무등서예연구원 원목회 관계자는 “일속 오명섭 선생의 작품 ‘평화’는 전쟁으로 복잡해진 이 시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느껴진다”며 “전시를 통해 다양한 서체로 완성된 회원들의 70여점의 작품과 40년



이 넘도록 이어져 온 원목회의 서력을 감상하며 깊어지는 가을 목향의 향기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전남 문화기획자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무장무장 토끼캠프: 퇴깡이 구출작전’ 지난 11일~12일 여수 디오션리조트

전남문화재단은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 및 문화기획자들을 대상으로 ‘무장무장 토끼캠프: 퇴깡이 구출작전’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11~12일 양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했다.

17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부여해 수요자 맞춤형 강연과 참여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테이블로 구성했다.

의식주·대상·질문·로컬·몸·관계라는 6개의 주제를 참여자들이 강사와 함께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형태의 강의로 진행됐다. 총 100여명이 참여해 강의 이외에도 참여자들 간 문화기획자로서의 현장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이 문화기획자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여건에 맞는 교육 사업에 참여해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시립발레단이 선보이는 따뜻한 성탄선물

제139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
내달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광주시립발레단은 제139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을 다음달 20~2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2차례에 걸쳐 선보인다.

17일 광주시립발레단에 따르면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의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제작한 전 2막의 작품이며 차이코프스키의 환상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대표 발레공연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지난 1997년 초연을 펼친 뒤 27년간 누적 관객 약 7만명을 기록하며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1~2023년 각 공연은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적인 클래식 발레 버전에서 충실하게 따르는 동시에 공연의 백미인 눈의 나라 장면을 강

조했다. 사락년부터 함박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장면을 24명의 발레리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은 1막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다.

2막에서는 작품의 시그니처 음악인 ‘꽃의 왈츠’와 주역 사랑요정과 왕자의 2인무를 정점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 ‘호두까기 인형’ 재안무 및 연출을 맡은 박경숙 예술감독은 “1막에서는 쥐와 병정들의 전투 장면과 눈의 나라 눈꽃 요정들의 춤을 눈여겨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2막에서는 각 나라 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통통 튀는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화려한 발레 공연으로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다. 오는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선예매가 진행되고 2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누구나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